

##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What Influences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y in Local Government?

: The Results of a Survey in Bucheon City

채 경 진\*\*

Chae, Kyung-Jin

### Ⅰ 목 차 Ⅰ

- I. 들어가며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V. 결 론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민선 1기부터 꾸준히 문화정책을 시행 중인 경기도 부천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조사를 통해 규명하였다. 우선,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성과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행정역량( $\beta = .385$ )과 관심 및 지지( $\beta = .372$ )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문화정책집행, 부천시, 문화도시

\* 본 논문은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2011년도)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12. 5. 11, 심사기간(1,2차): 2012. 5. 12 ~ 2012. 10. 18, 게재확정일: 2012. 10. 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policies in local government.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implem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study measures network,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competitiveness, interest and support, and cultural administrative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 Bucheon city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cultural policies.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cognition of public servants.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administration capacity of public servants', 'interest and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 Keywords: 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Bucheon city, Cultural city

## I. 들어가며

최근 전 세계적 한류, 많은 지방정부의 문화도시화로 인해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튜브, SNS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간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려는 동시에 문화정책 사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20년 이상 실시되면서 타 지방정부와의 비교우위 전략으로서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해 문화를 최우선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도시의 구축은 경제적 이익,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매년 '문화수도'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도시들은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파급력을 가져왔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적 문화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화정책의 집행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적합하다. 그 이유는 문화정책이 다원성과 창의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 구조보다는 훨씬 자율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박혜자·이기혁, 199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여러 지방정부가 문화를 최우선 슬로건으로 내세

우고는 있지만, 진지하게 세워진 비전과 전략이 담보되지 않아 원래의 정책의도는 달리 예산만 낭비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라도삼, 2006: 11).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집행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민선 1기 시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천시를 대상으로 각 요인의 수준과 이들 요인이 문화정책집행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시 어떠한 요인이 강화 혹은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의의

문화의 개념이 학문의 성격과 학자의 지향점에 따라 달라지듯이 문화정책의 개념도 다양한 방향에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즉, 문화정책이 '문화'의 의미를 차용한 개념이라면 문화정책을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後藤和子, 2001). 특히 문화정책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문화예술이 공공재로서 인식된 1970년대를 필두로 1980년대에는 문화민주주의·문화다양성 등이 논의되면서 문화복지 차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급성장으로 문화정책의 방향이 문화의 산업화에 초점을 두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일상, 생활, 환경, 교육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문화정책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라도삼, 2006: 18-19). 결국 문화정책은 시대적인 문화적 주요가치에 따라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에서의 문화는 예술문화 등의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및 하위문화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後藤和子, 200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문화에 개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정책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

1) 여러 학자들이 문화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만 문화는 대체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 지적·예술적·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 상징체계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임학순, 2003).

로 시행되고 난 뒤 여러 지방정부에서 선호되고 있다.<sup>2)</sup>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전도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제성과 당선가능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정홍익, 1996). 또한 Baumol & Bowen (1966)의 지적처럼 문화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파급효과를 낳으며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선호되는 정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정책의 집행기능은 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집행의 접근방법은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관계로 학자들 간 합의된 틀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일반적인 정책집행이론을 차용하여 상향식 접근법 및 하향식 접근법, 그리고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향식 접근법에서는 정책집행의 성패가 집행문제의 일선이 있는 관료들의 전문성, 경험, 지식 등 문제해결능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Lipsky(1976), Berman(1978) 등의 상향적 집행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선관료의 행태, 정책과 집행조직간 상호작용 과정, 유인구조 등이 강조된다.

반면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충실한 집행에 관심을 가진다. 대표적 학자인 Sabatier & Mazmanian(1979)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과이론, 집행관료들과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조화 능력,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집단, 이해관계집단 및 통치자의 정치적 지지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침해하지 않는 안정적 집행환경 등을 강조한바 있다(최종원, 1998: 176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통합적 관점은 상향식 접근법 및 하향식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으로서 Elmore(1985), Sabatier(1986), Winter(1990)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은 일선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유인구조, 집행환경, 네트워크, 정책결정과 집행의 맥락적 특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상향적, 하향적 접근법을 포괄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박경귀, 2002).

하지만 이상의 정책집행 이론들은 정책을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보고자 할 때 그 하위체계(subsystem)에 속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논의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김호균, 2006). 다만 앞선 논의를 통해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자면 정책내용(명확성·일관성·소망성), 정책자원(인적·물적), 집행담당조직(관료), 집행관계망(행위자들의 관계), 환경적 요소(지역의 관심 및 지지, 언론, 사회경제 및 정치적 여건) 등이 중시되는 것

2) 문화정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이병량(2011)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으로 나타났으며(김행범, 1995; Sabatier, 1986; 김호균, 2007에서 재인용), 이는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 도출시 일정부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지방자치가 자리 잡게 되면서 정책결정과 더불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역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정책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3)</sup> 특히 앞선 논의처럼 문화정책집행의 이론적 배경이나 모형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일은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김렬·구정태(1999)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를 대상으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책내용, 정책자원, 집행주체, 집행관계망, 정책환경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요인들이 성공적 정책집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 집행주체와 행위자간 원만한 관계 등이 중요하며, 모호한 정책 내용, 예산 및 인력의 불충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 지역사회의 참여 미흡 등은 성공적 집행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박광국·최상일·주효진(2000)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집행과정의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문화행정의 전문성, 문화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 문화 인프라의 구축, 지역문화산업의 경쟁력, 문화행사의 다양성, 문화발전의지를 문화정책집행과정의 영향요인으로 밝혀내고 이들 요인간 중요성을 인식도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박경귀(2002)는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으로 정책결정변수(목표의 합의, 자원, 조직구조), 집행인 변수(전문성, 동기, 몰입, 재량, 지도력), 집행환경 변수(의사소통, 외부의 지지 및 참여, 유인책, 자연적·물리적 환경)를 들고 있다. 또한 이들 요인들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산출되었을 때 정책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호균(2007)은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과 집행효과성과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독립변수로 정책집행 주체변수(지자치장의 리더십, 담당공무원의 속성 및 행태적 요소), 문화인프라 구축정도, 정책집행관계망 변수, 지역문화자원의 경쟁력 정도, 정

3) 외국의 경우도 'missing part'인 것은 마찬가지이다(박경귀, 2002: 3-4).

책환경 변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역량정도와 의사결정시스템의 민주성 제고, 문화담당공무원의 속성(문화에 대한 지식정도) 및 행태적 요소(업무몰입정도, 업무에 대한 자부심 정도)변수와 문화 인프라 변수 등 2가지 요인만이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호균(2006)은 지방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 한 뒤 이들 변수들 중 어느 변수가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집행목표의 달성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분산구조방정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문화행정의 전문성 정도, 기관장의 리더십요인, 기업메세나 요인, 문화인프라 요인, 문화행정에 대한 PR요인, 지역주민-문화예술인-지역기업간 네트워크 요인 등 6가지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네트워크 요인과 문화행정 PR요인 등 2가지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박광국(1999)은 국가간 비교를 통해 문화정책의 집행에 관해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우선 문화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요인, 조직내적 요인, 법적요인으로 범주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문화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문화정책 집행이론의 상황론적 맥락을 강조하였다.

앞선 연구자들이 강조한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정책 집행의 영향요인 검토

학자 (연도)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	기타
박혜자 (1998)		문예프로그램, 문예인프라	행정역량	문예육구	사회·경제적 요인	
박광국 (1999)	정치적 요인		조직내적 요인			법적요인
김렬·구정태 (1999)	집행관계망, 정책환경	정책자원	집행주체			정책내용
박광국·최상일 ·주효진 (2000)	문화관련조직간 협력정도	문화행사의 다양성,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의 전문성	문화발전의지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박광국·도운섭 ·주효진 (2000)	이해관계자, 문화예술인, 주민의 참여	가용재원의 충분성	최고정책결정 자의 관심, 관료들의			정책목표의 구체화

학자 (연도)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	기타
			전문성 및 업무몰입			
박경귀 (2002)	의사소통	자연적·물리적 환경	전문성, 동기, 몰입, 재량, 지도력, 조직구조	목표의 합의, 외부의 지지 및 참여, 유인책	재정자원	
김호균 (2006)	문화행정 PR, 지역기업-주민 -지역기업간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기관장의 리더십, 문화담당공무 원의 특성 및 태도		기업메세나 요소	
김호균 (2007)	정책집행관계망 변수	문화인프라 구축정도	지자체장 리더십, 담당공무원의 속성 및 행태적 요소	정책환경	지역문화자원의 경쟁력	

자료: 박광국 외(2000); 김호균(2007)을 기초로 재구성

본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처럼 설문조사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던 선행연구들이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의 집단간 인식비교 및 기초분석에 집중하고 있고, 영향요인과 그 효과성간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가장 최근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김호균(2006/2007)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호균(2006/2007)의 연구처럼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과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종속변수가 효과성이 아닌 성과라는 점,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데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정책집행이론에서 지적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책집행이론에서 강조된 요인들인 정책자원, 집행담당조직, 집행

관계망, 환경적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 요인과 내용적 속성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선 II장에서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변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련 실증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문작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최근 연구인 김호균(2006/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기반하여 보완 및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요인인 네트워크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역 유관 기업과의 협력,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의 협력,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간 협력, 지역주민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문화인프라로는 문화예술행사의 충분성, 문화예술행사의 다양성, 문화예술시설의 양적 충분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문화예술시설 담당인력의 충분성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문화행정역량으로는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 몰입도,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식, 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의지로 설정하였다.

넷째, 관심 및 지지로는 지방의원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으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는 축제행사시 외부관광객의 방문 정도, 지역기업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의 활용정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문화정책 집행의 성과로는 문화사업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제고, 문화사업의 목표달성도, 문화행사의 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정도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조작화하여 작성된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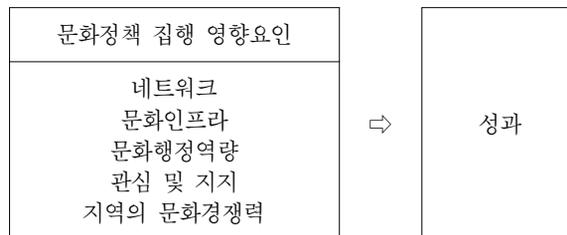
<표 2> 설문 문항

요인	설문 문항
문화행정역량	1. 나는 우리시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 몰입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우리시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 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시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식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우리시의 시장이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생각한다.
문화인프라	5. 나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시설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시설 담당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우리시의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요인	설문 문항
	9. 나는 우리시의 문화예술행사가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우리시의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	11. 나는 우리시의 문화정책집행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우리시의 문화정책집행시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우리시의 문화정책집행시 문화예술인단체와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우리시의 문화정책집행시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우리시의 문화정책집행시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간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우리시의 문화정책집행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화 경쟁력	17. 나는 우리시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우리시의 축제행사시 외부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우리시의 지역기업이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높다고 생각한다.
관심 및 지지	20. 나는 우리시의 지역주민이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우리시의 지방의원이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한다.
성과	22. 나는 우리시의 문화사업(정책)으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우리시의 문화사업(정책)의 목표달성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우리시의 문화행사가 문화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 집행의 영향요인들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요인간 가설관계를 도식화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부천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천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위치해 있음으로서 베드타운(bed town)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채택하였고 민선 1기 시장부터 현재의 시장까지 지속적으로 문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문 예산이 시 전체 세출의 10.8%(86,370백만원, 2010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천필하오닉오케스트라(BPO), 부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PiFan), 복사골예술제,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등 집중과 선택을 통해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등이 선정배경이 되었다.

특히 문화정책집행의 주체인 부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표본은 무작위 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sup>4)</sup> 또한 설문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설문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서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여 208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83.2%), 이 중 불성실하거나 일부 질문에 미응답한 설문 11부를 제외한 1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작성하였고, 분석은 사회조사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17명(59.4%), '여성'이 80명(40.6%)이고, '9급'이 2명(1%), '8급'이 20명(10.2%), '7급'이 53명(26.9%), '6급'이 88명(44.7%), '5급'이 30명(15.2%), '4급 이상'이 4명(2%)으로 나타났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본 분석에서는 측정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중 베리맥스 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

4) 특히 문화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은 필수로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적재값은 0.5 이상인 값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요인의 표본 적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Kaiser-Meyer-Olkin(KMO) and Bartlett test 결과를 적용하였다.

우선 KMO and Bartlett 테스트 결과 KMO 값은 0.880로서 판단기준( $>=0.5$ )보다 높게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의 유의도 역시 적합(.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i-image 값 역시 모두 0.9 이상(수용기준  $>=0.5$ )으로 나와 모든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통성(communalities) 역시 모든 문항에서 일반적 판단기준인 0.5 이상으로 추출되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대비하면 요인분석의 표본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인 값들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5개로 추출되었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관측변수	네트 워크	문화 인프라	문화 경쟁력	문화행정 역량	관심 및 지지	공통성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 몰입도	.122	-.016	.227	.825	.082	.754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	.141	.133	.232	.760	.145	.690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식	.228	.143	.469	.606	.020	.660
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의지	.093	.097	-.255	.679	.060	.547
문화예술시설의 양적 충분성	.179	.643	.424	-.205	-.198	.706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201	.614	.351	.270	.131	.631
문화예술시설 담당인력의 충분성	.226	.522	.391	.155	-.072	.506
문화예술행사의 다양성	.216	.795	.005	.184	.105	.723
문화예술행사의 양적 충분성	.029	.828	-.041	-.049	.075	.697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338	.630	.270	.205	.157	.651
중앙정부와의 협력	.823	.102	.005	.171	.107	.729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	.722	.211	.216	.141	.011	.632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의 협력	.772	.193	.085	.219	.169	.717
지역 유관 기업과의 협력	.781	.101	.332	-.002	.086	.738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간 협력	.681	.199	.415	.016	.065	.680
지역주민들의 참여	.553	.216	.345	.172	.199	.540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의 활용정도	.280	.310	.637	.070	.137	.604
축제행사시 외부관광객의 방문 정도	.259	.161	.706	.198	.138	.650
지역기업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	.228	.041	.686	.083	.278	.608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	.064	.200	.219	.111	.798	.741

관측변수	네트 워크	문화 인프라	문화 경쟁력	문화행정 역량	관심 및 지지	공통성
지방의원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지	.254	-.044	.114	.119	.781	.704
고유값	3.820	3.179	2.812	2.508	1.589	
기여율(%)	18.191	15.137	13.393	11.944	7.565	
누적기여율(%)	18.191	33.328	46.721	58.665	66.230	

주.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6회 반복계산하여 요인회전이 수렴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1은 네트워크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823),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722),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의 협력(.772), 지역 유관 기업과의 협력(.781),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간 협력(.681), 지역주민들의 참여(.553)로 구성되었다.

요인2는 문화인프라로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614), 문화예술시설 담당인력의 충분성(.522), 문화예술행사의 다양성(.795), 문화예술행사의 양적 충분성(.828),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630)으로 구성되었다.

요인3은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의 활용정도(.637), 축제행사시 외부관광객의 방문 정도(.706), 지역기업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686)로 구성되었다.

요인4는 문화행정역량으로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 몰입도(.825),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760),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식(.606), 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의지(.679)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5는 관심 및 지지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798), 지방의원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781)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변량의 66.230% 중 요인1(네트워크)은 18.191%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2(문화인프라)는 15.137%, 요인3(지역의 문화경쟁력)은 13.393%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4(문화행정역량)는 11.944%, 요인5(관심 및 지지)는 7.565%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군 별로 Cronbach's Alpha(a)값을 이용하여 측정문항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Cronbach's Alpha(a)계수가 도출된 모든 요인에서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1(네트워크)의 신뢰계수가 0.883, 요인2(문화인프라)가 0.842, 요인3(지역의 문화경쟁력)이 0.770, 요인4(문화행정역량)가 0.761, 요인5(관심 및 지지)가 0.629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성과' 역시 KMO값이 0.682(Bartlett p=.000)로 높게 나타났고,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또한 신뢰도 계수 역시 0.758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4&gt; 신뢰도 측정결과

요인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지역의 문화경쟁력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Cronbach's Alpha	.883	.842	.770	.761	.629
측정문항	6	6	3	4	2

## 2. 관측변수의 평균값

우선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문화행정역량'이 3.70점, '성과'가 3.64점, '문화인프라'가 3.39점, '관심 및 지지'가 3.28점, '네트워크'가 3.13점, '지역의 문화경쟁력'이 2.9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천시 공무원들은 문화행정공무원의 역량과 문화정책집행의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문화경쟁력에서는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별 관측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우선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 '지역 문화 예술인단체와의 협력'(3.32점), '지역주민들의 참여'(3.16점), '중앙정부와의 협력'(3.15점) 등 대부분의 변수가 보통 수준(3점)을 약간 상회하는 평균값이 도출되었다. 다만,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2.96점)은 보통(3점)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의 변수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인프라의 경우, '문화예술행사의 양적 충분성'(3.69점), '문화예술행사의 다양성'(3.63점)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보통수준(3점) 이상의 평균값이 도출되었다. 반면 '문화예술시설 담당인력의 충분성'(2.90점)의 결과를 통해 부천시 공무원들은 문화예술시설의 인력자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경우 '축제행사시 외부관광객의 방문 정도'가 2.7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관광객 유치 전략이 요구되며, 나머지 두 변수는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넷째, 문화행정역량의 경우 '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의지'(3.99점)가 가장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 몰입도'(3.64점), '자부심'(3.58점), '지식'(3.57점) 역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타 요인들에 비해 다소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심 및 지지의 경우 '지방의원'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은 각각

3.29점, 3.28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의 경우 '문화사업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문화행사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정도'가 각각 3.67점, 3.64점으로 나타났고, '문화사업의 목표달성도' 역시 각각 3.60점으로 앞선 변수에 비해 근소한 값을 나타냈다.

<표 5> 관측변수의 평균값

요인	관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네트워크 (3.13)	중앙정부와의 협력	3.15	.747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	2.96	.775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의 협력	3.32	.719
	지역 유관 기업과의 협력	3.13	.718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단체간 협력	3.07	.736
	지역주민들의 참여	3.16	.817
문화 인프라 (3.39)	문화예술시설의 양적 충분성	3.29	.979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3.43	.798
	문화예술시설 담당인력의 충분성	2.90	.845
	문화예술행사의 다양성	3.63	.802
	문화예술행사의 양적 충분성	3.69	.783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3.32	.813
지역의 문화경쟁력 (2.95)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의 활용정도	3.04	.838
	축제행사시 외부관광객의 방문 정도	2.79	.836
	지역기업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투자	3.02	.824
문화행정역량 (3.70)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 몰입도	3.64	.705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	3.58	.795
	문화행정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식	3.57	.671
	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의지	3.99	.884
관심 및 지지 (3.28)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관심	3.29	.835
	지방의원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지	3.28	.761
성과 (3.64)	문화사업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제고	3.64	.923
	문화사업의 목표달성도	3.61	.817
	문화행사의 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정도	3.67	.827

### 3. 회귀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앞서 도출된 5개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양측검증(two-tailed)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이 정(+ )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간 영향관계에서 긍정적 인과관계를 기대하게 해준다( $p < 0.01$ ). 또한 요인간 상관계수가 모두 0.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요 인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지역의 문화경쟁력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성과
네트워크	1.00					
문화인프라	.543**	1.00				
지역의 문화경쟁력	.604**	.534**	1.00			
문화행정역량	.415**	.323**	.396**	1.00		
관심 및 지지	.394**	.257**	.424**	.317**	1.00	
성과	.312**	.313**	.418**	.541**	.527**	1.00

주. \*\*  $p < 0.01$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된 요인 중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098로 나타났으며, F값은 20.867(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beta = .312$ ,  $p < 0.01$ )는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인프라를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119( $F = 12.641$ ,  $p < 0.01$ )로 나타났으며, 모형 1보다  $R^2$ 값이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beta = .181$ ,  $p < 0.05$ ), 문화인프라( $\beta = .212$ ,  $p < 0.05$ )는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투입한 모형 3의 설명력은 .176( $F = 13.249$ ,  $p < 0.01$ )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2에 비해  $R^2$ 값이 .057 상승하였다. 또한 지역의 문화경쟁력( $\beta = .316$ ,  $p < 0.01$ ) 요인만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요인에 의해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 새로 투입된 지역의 문화경쟁력 요인에 의해 설명되면서 이들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형 4의 경우 설명력은 .315( $F=22.705$ ,  $p<0.01$ )로 나타났으며, 모형 3에 문화행정역량 요인을 투입하였다. 이전 모형에 비해  $R^2$  값이 .139가 상승하여 모형 설명력이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경쟁력( $\beta=.224$ ,  $p<0.05$ )과 문화행정역량( $\beta=.438$ ,  $p<0.01$ )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 관심 및 지지를 투입한 모형 5의 경우 설명력은 .437( $F=28.611$ ,  $p<0.01$ )로 나타났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R^2$  값이 .122가 상승하여 모형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성과에 대해 문화행정역량( $\beta=.385$ ,  $p<0.01$ )과 관심 및 지지( $\beta=.372$ ,  $p<0.01$ )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sup>5)</sup>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네트워크	.312	4.568**	.181	2.219*	.044	.496	-.061	-.755	-.131	-1.737
문화인프라			.212	2.594*	.115	1.371	.083	1.100	.094	1.348
지역의 문화경쟁력					.316	3.586**	.224	2.772*	.127	1.666
문화행정역량							.438	6.501**	.385	6.152**
관심 및 지지									.372	5.947**
$R^2$	.098		.119		.176		.315		.437	
$\Delta R^2$	-		.021		.057		.139		.122	
F	20.867**		12.641**		13.249**		22.705**		28.611**	

\* $p<0.05$ ,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 규명을 통해 이들 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천시외의 경우 지방정부 문화정책집행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공무원 전문성, 업무몰입, 시장의 지원 등 '문화행정역량'과 지방의원, 지역주민의 '관심 및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앞선 정책집행론자들이 강조한 관

5) 모형 1에서 모형5까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거치면서 모형마다 Durbin-Watson값과 공차 한계값 및 분산팽창요인(VIF)값 역시 일반적 판단기준에 수렴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료의 역량은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김호균(2007)의 연구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김호균(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책집행집단의 역량, 문화인프라가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책집행주체인 관료들의 역량이 중요함에는 결과가 일치하였으나 문화인프라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위해 문화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한 광역지자체인 광주광역시와는 달리 기초지자체인 부천시의 경우에는 문화인프라 보다는 관료적 역량과 집행주체인 부천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지방의회, 주민의 지지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부천시의 경우 지하철 7호선 증설과 5대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기존 혹은 새로운 문화사업을 추진할시 시의회 등과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전임시장 재직시에도 5대 문화사업을 6대 문화사업으로 확대하려하자 시의회 등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결국 현 시장으로 교체 후 폐지되었다.<sup>6)</sup>

또한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김호균(2007)의 지적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한 정책의사결정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장기 계획수립에서는 4년이라는 시장의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이 어려워 장기간을 내다보는 그림보다는 짧은 기간에 가능한 축제 행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라 볼 수 있다(박광국·채경진, 2010: 14).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관주도형의 문화정책 사업을 실시하는 부천시의 경우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역기업의 투자와 문화축제행사시 외부관광객의 방문은 문화정책집행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V. 결론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성과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집행에 일정의 함의를

6) 실제로 5대 문화사업 중 하나인 부천필을 둘러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선우영·장지호(201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집행의 영향요인으로 네트워크, 문화인프라, 문화행정역량, 관심 및 지지, 지역의 문화경쟁력으로 설정하였고, 이들 요인과 종속변수인 성과간의 관계를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행정역량( $\beta = .385$ ), 관심 및 지지( $\beta = .372$ ) 요인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 문화정책집행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외적으로는 관심 및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내부적으로는 문화행정역량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부천시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지를 얻는 일은 성공적 집행에 성패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내부적 역량 즉, 시장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의지, 문화행정공무원의 몰입도 및 자부심, 전문성 등이 향상되고 지속될 때 문화정책집행의 성과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행정역량의 관측변수들이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상대적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부천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나타난다. 또한 공무원의 인식도를 바탕으로 결과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방법론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천시민 및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각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민선 자치의 실시 이후 문화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여러 지방정부에게 나름의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여러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실을 상기하면 이러한 실증분석은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렬·구정태. (1999).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요인 분석 - '98경주세계문화EXPO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1(4): 911-932.
- 김호균. (200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5(2): 79-107.
- \_\_\_\_\_. (2007). 문화정책집행영향요인과 집행효과성과의 관계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1): 167-192.
- 라도삼. (2006).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41(446): 11-25.
- 박광국. (1999). 문화정책의 상황론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보』, 8(1): 5-24.
- 박광국·도운섭·주효진. (2000). 문화정책 집행사례 분석: 대구광역시 달구별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297-313.
- 박광국·최상일·주효진. (2000).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행정논총』, 38(2): 133-154.
- 박광국·채경진. (2010).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도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1-22.
- 박경귀. (2002). 문화정책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세계춤축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1-24.
- 박혜자. (1998). 지역문화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모형연구. 『도시행정학회보』, 11(1): 207-234.
- 박혜자·이기혁. (1999). 도시문화정책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선우영·장지호. (2010).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지원에 관한 고찰: 부천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스토리텔링. 『지방정부연구』, 14(3): 189-215.
- 이병량. (2011).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3): 119-146.
-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서울: 진한도서.
- 정홍익. (1996). 지방문화정책의 변화와 진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0회 국가정책세미나 자료집』.
- 최종원. (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7(1): 173-206.
- Baumol, William J. & William G. Bowen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 Berman, Pau. (1978). Thinking about Macro-and Micro-Implementation. *Public Policy*, 26(2): 157-184.
- Elmore, Richard. (1985). Forward and Backward Mapping: Reversible Logic in the Analysis of Public Policy. In Kenneth Hanf & Theo A. J. Toonen(eds.).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 Dordrecht, Netherlan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Lipsky, Michael. (1976).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In Willis D. Hawley and Michael Lipsky(ed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Urban Politics*. Engelwoods Cliffs, N. J. : Prentice-Hall.
- Sabatier, Paul P. & Daniel Mazmanian. (1979).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Policy Analysis*, 5: 481-504.
- Sabatier, Paul P. (1986).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Journal of Public Policy*, 6(1): 21-48.
- Winter, Soren. (1990). Integrating Implementation Research. In D. J. Palumbo and D.J. Calista(eds.). *Implementation and Policy Process*. New York : Greenwood Press.
- 後藤和子 編. (2001). 「文化政策學: 法・經濟・マネジメント」. 東京: 有斐閣.